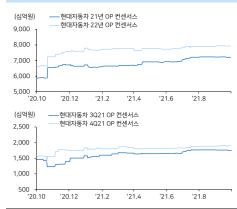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1. 10. 06(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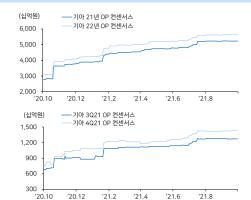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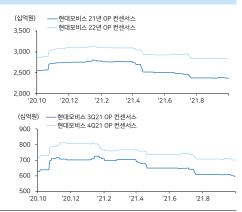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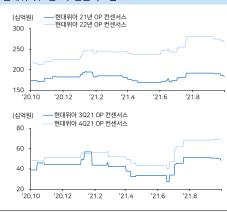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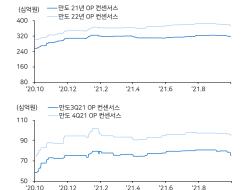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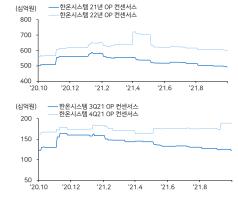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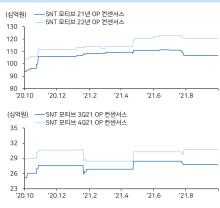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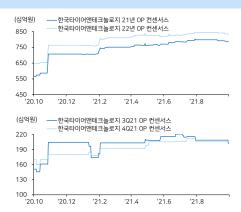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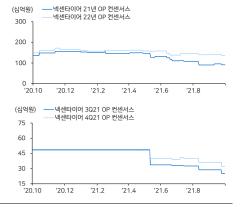


·한온시스템 21년 OP 컨센서스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아이오닉5, 유럽 전기차 바로미터 노르웨이 판매 '5위' (THE GURU)

현대자동차 E-GMP 기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유럽 전기차 시장 바로미터인 노르웨이에서 3분기 1,708대 판매되며 '톰5'에 등 극. 지난 5월 말 판매가 본격화된 점을 고려 시 높은 수준. 테슬라는 4,872대 판매되며 1위 독주 중 https://bit.lv/3oz3D2T

저렴하고 실용적… '작은 전기차' 글로벌 인기 질주 (동아일보)

현대차는 2023년경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 출시를 검토 중.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약간의 생산설비 투자로 친 환경차 생산이 가능. 경차 '레이'를 보유한 기아도 친환경차 전환 계획에 맞춰 전기 경차 출시 가능성이 거론됨. https://bit.ly/3mwdtjz

반도체 수급난에도 중국 전기차 기업 9월 판매 '쑥쑥' (아주경제)

중국 토종 전기차업체 비야디의 지난달 차량 인도량은 7만9,037대로, yoy + 93.2% 증가함. 컨센서스를 5.9% 상회한 인도량. 특히 전기차 인도량은 yoy 276% 증가한 7만여 대로 집계됨. 그외 니오와 샤오평은 월 인도량 1만대를 돌파함. https://bit.ly/3Ae4zvP

선주문만 15만대…'제2의 테슬라' 리비안이 다른점 세 가지 (한겨레)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증권신고서를 공개함. 상장후 기업가치는 약 800억달러로 예상됨. 동사는 픽업트럭, SUV, 배달용 밴을 주력으로 하며, 자율주행보다는 물류서비스(택배배송, 전기트럭 관리서비스)에 특화한 성장 전략이 특징. https://bit.ly/3adA4eV

현대차 공장에 '이것' 들였더니…"1시간 작업도 3분이면 뚝딱" (한국경제)

유니버설 협동로봇은 자동차와 전자업계가 최대 수요처. BMW는 이 로봇을 연간 100대 가량 도입해 생산성을 높임. 현대자 동차도 협동로봇을 통해 차량을 초고속으로 스캔해 첨단 전장제품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 https://bit.ly/3FfJYed

현대차 아이오닉5, 獨 3대 전문지 평가서 모두 '최고점' (THE GURU)

현대자동차 E-GMP 기반 '아이오닉 5'가 독일 3대 전문지 자동차 평가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으며 상품성이 증명됨. 유럽 전 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만큼 향후 아이오닉5의 유럽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https://bit.ly/2ZRznpv

빨라지는 전기차 혁명, 유럽 전기차 판매 3년 만에 6배 증가 (한국경제)

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19만8,000대에서 올해 117만대로 6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블룸버그NEF는 '30년 전기차 점유율이 3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https://bit.ly/3DbMLDI

폭스바겐 "2년 내 독일 배터리 기가팩토리 착공" (THE GURU)

폭스바겐이 2년 안에 독일 잘츠기터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 '25년부터 20GWh 규모 양산을 시작할 계획. 이 는 중국 귀시안과 합작해 짓는 생산시설로 추정되며, 양사는 7월 배터리 셀 개발 관련 협력하기로 한 바 있음. https://bit.ly/3lawwAa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담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 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